

시인이 훑쳐본 비디오의 은밀한 즐거움

「하재봉의 비디오 천국」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나의 욕망은 다름 아닌 은밀한 옛보기이다. 내 삶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이의 삶과 생각을 훑쳐봄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그 만족감이 나를 지탱시키는 하나의 철주이다.

그런 의미로 「하재봉의 비디오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내가 아는 하재봉이란 이는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또 「비디오 천국」이란 것은 그의 시집제목인데 지은이와 시집제목을 무감각하게 조합한 이 제목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비디오천국」이란 시집의 비밀을, 그리고 하재봉이란 시인의 생각을 그의 삶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만 같았다. 역시 그런 나의 희망은 빗나가지 않았다. 시인은 책 첫머리에서부터 나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이럴수가, 그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의 욕망 역시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은밀히 엿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 누구나 다른이의 삶을 훑쳐보기를 원한다.

하재봉은 27편의 비디오를 통해 많은 삶을 공유하며 그 삶을 훑쳐보고 있다. 남이 훑쳐본 것을 또 훑쳐본다는 것은 실로 더할나위 없는 재미이다. 그렇게 나는 그의 옛보기의 보고서를 읽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분명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만족감속에 꺼끌꺼끌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 기분, 나는 그 정체를 알기 위해 다시 책을 읽는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이 아주 독특한 방식을 통해 쓰여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시인이라는 점이다. 사실 저자가 시인이라는 사실은 옛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쾌감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시인이 분석하는 세계는 아주 흥미롭다. 시인들은 존재의 비밀을 틀어쥐고 있는 마법사가 아니던가. 더군다나 이 시인은 비디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하재봉은 영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은밀한 의사소통상대인 비디오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책의 첫번째 분석작품인 파리텍사스를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다. 몇몇 평자들이 바라본 파리텍사스가 상채받은 영혼의 외로운 순례길이고, 삶의 근원적 출발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과 하재봉이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르다.

하재봉의 비디오에세이는 수많은 반복재생

을 통한 자기 확인이다.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인 비디오의 녹화·재생·반복·정지를 통해 그 영화는 비디오로 다시 태어난다. 시인의 특기는 무엇일까, 하나의 주제를 변주해서 숨은 화음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이 시인은 그의 특기를 십분 살려서 이 비디오들을 변주하고 또 독해해낸다. 즉, 수많은 영화 평론과 비디오 평론이 영화속으로 들어가 평자의 개인의 시각을 바라보는 반면 이 시인은 그 비디오들을 자기의 사유속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삶에 끼워맞추고 있다. 그가 밝혔듯이, 이 글들은 비디오를 통한 개인적 사유와 체험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은밀한 드러냄이다.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훌륭한 또 전혀 새로운 방식의 비디오 읽기가 될 수 있다. 문제점은 시인이 그런 방식을 통해 「드래내 보이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시인의 과욕이 아닐까 싶다. 사실 훑쳐보기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해하리라. 훑쳐보기의 묘미는 감추고자 하는 비밀을 엿보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보인 사람을 훑쳐보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 하재봉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 꿈속으로 독자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또한 하재봉은 자기의 꿈을 드러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보여준다. 드러난 꿈속으로 합류하는 것은 즐거울지 모르나 타인의 상처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껴안는다는 것은 역시 힘든 일이다. 내 꺼끌꺼끌한 기분은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훑쳐보기의 쾌감을 잃은, 또 훑쳐보고 있다 해도 그것이 타인의 쓸쓸함이라면 이 꺼끌꺼끌한 기분은 설명이 될 것이다.

박대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8-608 26/4

「친애하는 기자여러분」

주간신문 데스크 송경호가 쓴 「친애하는 기자여러분」은 기자라는 화려한 명칭속에 움츠러들어가는 주간, 월간 잡지기자들의 애환과 삶을 비망록 형식으로 적어나간 아주 '가벼운' 기록이다. 송경호는 주간지, 월간지, 지방일간지 등에서 직접 발로 뚫은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으며 우리는 일간지 기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력하는 주간지 기자들과

월간지 기자들의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설픈 인식해 왔던 그런 모습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절박한 모습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누구나 '기자가 되고 싶다' 혹은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멋져'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직업같으면서도 큰 사건과 주요현장에 마음대로 넘나들며 높은 사람들을 만나 보도자료 등을 받아 원고지에 몇자 적어나가는 그런 편만한 직업이면서도 명예가 주어지는 직업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 비해 똑같은 기자들임에도 일간지와 주간지, 또 월간지 기자들의 차별대우는 신문사의 자본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물론 독자들의 인식정도에 따라 더욱 어려운 취재여건속에서 한가지 기능만이 아닌 모든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기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함을 느낄 수 있다. 잘 나가는 신문의 잘 나가는 기자는 비록 못되어도 주간, 월간 기자들의 '기자'에 대한 직업의식은 프로야구선수의 프로의식 못지않다는 희망적인 글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을 넘길 때마다 한장 한장에서 기자들의 남다른 고통과 애환, 신문을 만든다는 기자들의 자부심과 긍지, 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 나라의 언론현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신문을 꿈지못한 눈길로 대하는 독자들의 향연이 가득 실려있다.

언론자유화이후 지역정보지에서 특정 정보지, 주간지, 월간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또 우리결에는 왜 그 많은 기자들이 잘보이지 않는가. 공보처에 등록된 일간신문만 1백여개라 하니 기자들의 평균수입에서부터 촌치수수여부, 신문제작에 따른 수많은 예피소드들이 아주 재미있고 가볍게 담겨있다.

「공룡시대의 도토리 기자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이 책은 많은 비슷한 종류의 책들과 대조된다. 가장 현실감 있게 글을 적어나가다 보니 기자들의 평균수입에서부터 촌치수수여부, 신문제작에 따른 수많은 예피소드들이 아주 재미있고 가볍게 담겨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신문들이 분명 아직 열리지 않은 행사를 '열렸다'로, 그것도 '어떻게' 열렸는지까지 아주 그럴싸하게 쓰는 능력 있는 기자들에 대한 글과, 때론 오보도 내는 기자들의 애환을 이 책에서는 쉽게 읽을 수 있다.

오늘도 기사꺼리를 찾기위해 어딘가를 부지

런히 쫓아다니는 기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우승호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369-19

「장미도둑」

근간에 발표된 여러 우화집 중에 유독 관심이 가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처음 대하는 듯한 작가의 이름이며 줄거리의 신선함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이렇다 할 독서문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오늘에 '장미도둑'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여럿 눈에 띄었다.

어느 장르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책이든 간에 재미가 없는 책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여지껏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작품치고 재미 없었던 책이 단 몇 권이나 되겠는가. 책 한 권 제대로 읽어 내리지 못하는 지금의 현대인들을 볼 때 재미있음이란 그 책의 흥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책 「장미도둑」은 소위 성공한 책이다. 재미도 있

으려니와 중간중간마다 작가 특유의 위트있는 문장과 가볍지 않은 주제의식은 이 책을 더욱 매끄럽게 읽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재미있었던 글은, 「장미도둑」에 실린 단편중에 하나인 「심각한 소설」이었다. 너무나 심각한 주제를 다룬 나머지 사람들은 책을 펴자마자 잠속에 빠져들고, 이른바 '수면서적'이 된 이 책은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사람들이 모두 이 '수면서적'을 읽되 읽는 도중에 잠들어 끝부분을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독자들은 그 책의 저자에게 끝부분을 알려 달라고 항의를 하지만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저자 자신 또한 끝부분의 집필과 함께 잠 속에 빠져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어찌보면 '수면소설'이란 문구 자체가 기발해서 우습기도 하고, 결말에서 맥이 탁 풀리는 게 공허한 메아리 같기도 했지만 요컨대, 이 책의 재미는 여기에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어떠한 큰 획을 지닌 가르침 아래 교사하는 책이 아닌 스스로 알게 하는 작은 깨달음, 금상첨화로 작위적이지 않은 웃음까지 고풍 갖추었다면 한 권의 책에서 더이상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여러단편을 엮어 하나의 우화집으로 만들다 보니 간혹 별 의미 없는 단편도 눈에 띄어 다소

좋은 책 만드는 데 힘써 온 대교출판에서 스스로의 '얼굴'이라
자부할 만한 눈높이 문고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미래를 밝혀 주는

눈높이 문고

1. 내 어머니 흰 아침나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누구나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할 우리 겨레의 빛나는 삶을 감동적으로
재창조한 옴니버스식 장편동화.

■ 지은이/ 권용철 ■ 값 5,800원

2. 잠들지 않는 별 '92 문화부 추천도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소년의 강인한 정신
력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담은 장편동화.

■ 지은이/ 신동일 ■ 값 5,800원

3. 트리갯의 샘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우수 추천도서
영원한 삶에 대한 무의미성과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미국 장편동화.

■ 지은이/ 나탈리 배비트 ■ 옮긴이/ 최순희 ■ 값 5,800원

4. 새들은 왜 울지 않는가
희귀한 동박새 포롱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느끼고 가꿀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는 장편동화.

■ 지은이/ 김자환 ■ 값 5,800원

5. 줄리와 늑대
길을 잃고 늑대와 함께 생활하는 알래스카 에스키모족 소녀의 눈을
통해 동물 세계의 따뜻한 정과 에스키모족의 삶을 자세히 그린 미국
동화.

■ 지은이/J.C조지 ■ 옮긴이/ 서수현 ■ 값 5,800원

6. 구슬이네 아빠 김덕팔 씨 '93 문화부 추천도서 선정
현대 사회에서 자칫 잃기 쉬운 가족들의 따뜻한 정과 희생 정신이 전
면에 가득 담긴 창작동화.

■ 지은이/ 소중애 ■ 값 5,800원

7. 꽃새 찌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꽃새 찌루를 통해 물질 만능 주의에 젖어가는 세
상에 사랑의 빛을 던져 주는 장편 창작 동화.

■ 지은이/ 김학선 ■ 값 5,800원

8. 가슴마다 사랑
제1회 눈높이 아동문학상 장편동화 부문 당선작으로 주인공 재훈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준다.

■ 지은이/ 손수자 ■ 값 5,800원

※ 계속 출간됩니다

실망스럽거나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재미만 있는 것도, 경박한 가르침도 아닌 말
그대로 우화적인 요소가 충분히 뻗 보기도문
작품인 것만은 확실했다. 이 책의 지은이 쿠
르트쿠센버그는 독일출신의 우화작가이며 세
계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작가라고 한다. 국내
에선 처음으로 소개된 탓에 괜실히 낮이 설고
약간은 친숙치 못한 구석도 있었지만 독일의
국민성이 물씬 풍기는 이야기거리가 일상의
널브러진 추억들을 건져 올리는 그물망이 될
것이다.

최강산

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면 10리 산4번지

「철학의 명저 20」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그 수요
가 늘어난 책이라면 학생 대상의 논리학책,
쉽게 씌어진 철학책 등일 것이다. 이제는 대형
서점에서 따로 진열장을 마련할 만큼 중·고생
대상의 책들이 많아졌고, 한결같이 외치는 것
이 "이 책을 읽으면 시험이 쉬워질 것이다."
혹은 "이 책을 읽으면 입시에 합격할 것이다."
이다.

새길 출판사가 펴내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들이 쓴 「철학의 명저 20」도 그 서문에서
이 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이 책도 기존의
고등학생용의 책, 즉 입시를 위한 책과는 몇
가지 커다란 차이점을 갖는다.

그 첫째는 이 책이 씌어진 목적이다. 분명히
이 책은 바뀐 입시제도가 만들어 놓은 독서
분위기를 타고 나온 책이다. 그러나 다른 철
학책들처럼 시험을 겨냥한 책이 아니라는 것
을 분명히 밝힌다. 이 책을 읽어서 시험을 잘
볼 것이라고 유혹하지 않고, 이 책만 읽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큰소리치지도 않는다. 「철
학의 명저 20」의 필자들은 오히려 이 책을 비
판적으로 읽고, 이 책에서 소개한 원전을 한
권이라도 읽고, 자신들이 쓴 글과 다른 글을
써 보라는 벽찬(?), 또한 시대착오적인(쉬운
책으로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만화화하려는
이 때) 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도
서의 목록까지 달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저
자들은 헤겔의 사생아 얘기를 하며 흥미를 자
아내고, 연예인과 열성팬의 예로 허위의를
설명하기도 하는 등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재미가 자칫 '철학 하기' 보다
강조되는 주객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피하
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다. 그런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었던 요
인이 두 번째 특징인 이 책이 전문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논리아 놀자」 시리즈의 위기철 씨나 「상식
속의 철학 상식 밖의 철학」의 이진경씨는, 비
록 그들이 철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하
더라도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래서 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어떤 것은 부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그것도 각자의 전공이기
때문에 수십 번씩 읽었을 원전에 대해서는 그
렇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미는 덜
할지 몰라도 훨씬 신중한 서술이 될 수 있었
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 책의 특징은,
우리 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쓴 글이라는 점이
다. 일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대
비한 읽을거리를 찾을 때 손쉽게 권하던 책이
W. 듀란트의 「철학 이야기」였다. 책을 추천해
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 때 읽은 책이
그것이었던 탓도 있지만, 애초부터 우리의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우리 교육 여건이 성숙해서이건 단
지 입시 제도의 변화 때문이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쉬운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
나왔다는 건 양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물론 이 책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
기 때문에 내용의 난이도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점이 이 책의 치명적인 단점
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철학의 명저가 태어나
던 시대의 배경을 밝히고 그 철학자의 삶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해설을 해준 다음
그 내용을 비판한다는 서술 방식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 철학이
그 시대의 반영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철학의 명저라고 하면 누구라도 떠올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순수이성비판」 등
서 동양 철학자인 「주역」, 좁은 생소한 「대동
서」, 그리고 현대 철학에 속하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푸코의 「담론의 질서」까지 망라
된 이 책은, 철학사를 일별하는 데도 좋은 지
침서가 될 수 있다.

신수진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7-1 일성빌딩 글과생각 편집부



전화 : 571 - 8080-4, FAX : 578 - 1466